

영어 이동동사 come과 go의 유표성 양상에 관한 연구*

주보현 · 박기성**
(부산대학교)

Ju, Bo Hyun & Park, Kiseong, 2011. A Study on the Aspects of Markedness in English Motion Verbs Come and Go. Linguistic Research 28(2), 355-371.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the aspects of markedness or asymmetry in English motion verbs *come* and *go*. The following claims are made in this paper. First, it is claimed that the aspect of neutralization could be used to argue for the unmarkedness of English verb *go* when compared to English *come*. Neutralization here has to do with the property to function as a hyperonym for the two contrasting terms. Second, it is shown through the corpus analysis that the high frequency and formal distribution patterns of various forms involving English *go* strengthen the claim that English *go* is an unmarked term. Third, it is shown through corpus analysis that English verb *go* occurs with the adjectives both with positive and negative meanings, while the verb *come* predominantly with the ones with positive meanings, which suggests the unmarkedness of English *go*. Fourth, it is suggested that the (un)markedness of cognitive complexity need to be determined on the basis of linguistic as well as extralinguistic analysis, and that considering the previous discussions and our corpus data, we are sure about the unmarkedness of the verb *go*. (Pusan National University)

Key Words motion verb, *come/go*, (un)markedness, asymmetry, corpus, neutralization, distribution, cognitive complexity

1. 서론

이동이란 물리적 개체가 시간의 변화와 함께 어떤 공간에서 다른 공간으로 위치를 옮겨가는 것을 의미한다(Matlock 2004). Radden(1996: 424)은 이러한 이동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활동 중의 하나이므로 인간의 지각적 경험 가운데에서 일차원적이며 필수적인 개념으로 간주된다고 하였다. 이동과 관련한 언어적 표현은

* 본 논문에 대해 유익한 조언을 주신 익명의 심사위원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있을지 모를 나머지 오류들은 전적으로 필자들의 몫임을 밝힙니다.

** 제1저자: 주보현; 교신저자: 박기성

모든 언어에 존재하며 다양한 수준의 담화에서 발견된다고 여겨질 만큼 사용의 범위가 넓고 종류가 다양하여 많은 학자들의 관심을 받아왔다(Miller & Johnson-Laird 1976, Goddard 2010, Nakazawa 2009, Levinson 2006, Radden 1996, Talmy 2000).

영어에서 *come*과 *go*는 기본 이동동사로 맞선 방향을 전제로 대립관계를 이룬다. 일반적으로 *come*은 화자에게로 향하는 이동을, *go*는 화자에게로 향하지 않는 이동을 의미하므로(Goddard 2010: 147), 두 동사는 의미적으로 대칭적이며, 단순한 일대일의 대립적 관계를 갖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도착점 중심의 대칭적 관계에서 벗어나, 구조적, 의미적, 인지적 측면 등에서 다양한 비대칭적 특징이 나타난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를 코퍼스¹ 분석에 바탕을 둔 유표성(markedness) 관점에서 기술해 보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유표성이란 대립관계 요소들 간의 비대칭적 관계를 대표하는 개념으로, 형태론, 문장론, 의미론, 외국어 습득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대립 관계를 구분 짓는 도구로 인정되고 있다(유승만 2006: 271-272). 유표성 이론에서는 대립쌍 중에서 더 단순하고 일반적이며 원형적인 요소를 ‘무표적 용어’(unmarked term)라고 하며, 복잡하고 특수하며 주변적인 요소를 ‘유표적 용어’(marked term)라고 한다. Haspelmath(2006)는 유표성을 부여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준을 총 12개로 제시하였으나 본 논문에서는 Battistella(1990), Elšik & Matras(2006) 등의 연구에서 사용된 중화(neutralization), 분포(distribution), 인지적 복잡성(cognitive complexity) 등의 기준을 채택하였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분포의 양상을 형태적 분포와 의미적 분포라는 두 가지 구분을 추가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제2장에서는 중화라는 관점에서의 *come*/해의 유표성을 논의하고자 한다. 아울러 제3장은 형태적 분포 관점에서, 제4장은 의미적 분포 관점에서의 *come*/ *go*의 유표성을 논의한다. 제5장은 인지적 복잡성 관점에서의 유표성을 논의하고, 마지막으로 6장은 본 연구를 종합하고 결론짓는 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¹ 코퍼스 분석을 위해 Corpus of Contemporary American English(COCA)와 Corpus of Historical American English(COHA)가 사용되었다. 인터넷 기반의 무료 프로그램으로 2008년 Brigham Young University의 교수 Mark Davies에 의해 만들어졌다. 미국 영어를 기반으로 총 4억 2500백만 개 이상의 단어를 포함하고 있으며 각 어휘에 품사 구분이 되어 있어 어휘의 결합관계를 살피는 데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COHA는 1800년대부터 2000년까지의 어휘 자료를 구축하고 있어 시대별 언어 변화 추이를 조사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2. 중화의 유표성과 come/go

중화란 의미적 구분에서 발생하는 비대칭적 현상으로(Haspelmath 2006) 특정한 환경에서 두 단어의 대립이 일시적으로 사라지는 현상이다. 영어에서 man과 woman은 서로 반의어이지만 man은 남성을 의미하거나 혹은 남성과 여성의 구분 없이 인간이라는 의미 둘 다를 사용될 수 있으므로 중화기준에서 무표적 용어로 분류된다. 이제 이 기준을 come과 go에 적용하여 살펴보도록 하자.

두 동사의 의미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비주얼 시소러스(Visual Thesaurus)²와 워드넷(Wordnet) 2.1³을 사용하였다. 비주얼 시소러스에서 come의 반의어는 go 하나로 제시되었으나 go의 반의어는 come과 no-go 두 가지였다. 이는 come은 직시적 중심⁴을 기준으로 가까워지는 이동을 의미하며 직시적 중심에서 멀어지는 go와 서로 반의관계지만 go는 직시적 성격을 가지지 않고서도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직시적 성격이 배제된 go를 Clark & Garnica(1974)는 중립적 이동동사(neutral verb of motion)라고 설명했다. 중립적 이동동사 go는 move, locomote, travel 등의 이동동사와 같은 부류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관계는 워드넷 2.1의 자료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go의 반의어를 검색한 결과 come이 검색되었으며 come이 어떤 동사의 하위 부류인지 검색했을 때 come은 travel, go, move, locomote와 같은 이동동사의 하의어(hyponym)로 분류되었다.

두 자료의 결과를 통해 come과 go는 대립관계에 있는 동시에 go가 come의 의미를 내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의미적 관계를 예문을 통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 (1) a. All the people were coming in.
- b. All the people were going out.
- c. The people were coming in and going out.
- d. *The people were coming in and out.
- e. The people were going in and out.

(1a)는 화자가 어떤 공간 안에 있고, 화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화자가 있는

2 싱크맵(Thinkmap)에서 만든 비주얼 시소러스라는 프로그램에서는 어휘의 여러 의미와 관계들을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다의어의 경우 각 항목의 유의어와 반의어 등을 모두 한 눈에 도식으로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3 워드넷(Wordnet) 2.1에서는 한 어휘의 의미와 동의어, 반의어 그리고 함의관계에 대한 여러 정보를 제공한다.

4 직시적 중심(deictic center)이란 come과 go 두 동사의 사용을 구분하기 위한 기준점을 뜻한다.

공간인 직시적 중심을 향해 들어오는 행위로 이해된다. (1b)에서는 화자와 모든 사람들이 같은 공간 안에 있다가 화자에게서 멀어져 밖으로 나간 행동으로 이해될 수 있다. 동시에 화자는 다른 사람들과 같은 공간 안에 있지 않고 멀리서 지켜볼 수도 있는데, 사람들이 어떤 공간 안에서 공간 밖으로 나오며 그 이동이 화자 쪽에서 멀어지는 것이 아닐 때도 사용이 가능하다. 즉, 직시적 중심에서 멀어지는 이동과 직시적 성격이 드러나지 않은 의미로 모두 활용이 가능하다. (1c)에서는 화자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같은 공간 안에 있을 때만 사용할 수 있으므로 *come*과 *go*가 직시적 중심을 기준으로 의미상 완전히 대립하고 있다.

(1d)의 의미가 자연스럽게 없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 (1e)를 먼저 살펴보자. (1e)는 화자가 사람들이 없는 외부에서 그들을 지켜보고 있는 상황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화자는 멀리서 사람들이 어떤 공간 속으로 들어가고 그 공간에서 나오는 것을 지켜보고 있는 것이며 이것은 화자라는 직시적 중심과 상관이 없는 이동이며 *go*가 직시적 성격 없이 사용된 문장이다. (1d)는 화자의 위치를 정할 수가 없는데 *come*이라는 동사가 화자와 직시적 중심을 일치시키기 때문이다. 화자가 직시적 중심이 된다면 화자 쪽으로 향하는 이동은 *coming in*이 사용되는 것이 맞지만 *coming out*은 화자가 동시에 외부 공간에 존재할 때만 사용이 가능하다. 위의 예들을 통해 *come*은 직시적 중심이라는 기준점을 배제한 이동의 의미로 사용될 수 없지만 *go*는 직시적 동사와 직시적 성격이 드러나지 않는 이동 동사로 모두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come*과 *go*의 의미관계를 중화 기준에 비추어 본다면 *go*는 *come*과 직시적 성격으로 대립관계에 있으며 동시에 *come*의 상위어로 분류될 수 있으므로 *come*은 유표적이며 *go*는 무표적이다.

3. 형태적 분포의 유표성과 *come/go*

형태적 분포의 유표성이란 문법적 요소가 발생할 수 있는 통사적 환경의 수와 관련이 있다(Elšik & Matras 2006: 19). Croft(2003)는 이 기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Two definitions of the distributional potential are possible. A stronger definition requires that the marked element occurs in a subset of occurrences (grammatical environments, construction types) of the unmarked value. A weaker definition requires that the marked element

occurs in a smaller number of contexts than the unmarked value.

즉, 분포성 기준에 의하면 유표적 용어가 나타날 수 있는 문법적 환경이나 구조적 유형이 무표적 용어에 비해 제한적이다. Shen(1999) 또한 무표적 용어가 적용될 수 있는 통사 환경은 유표적 용어가 적용될 수 있는 통사 환경보다 많거나 같으며, 임지룡(1997)은 대립쌍에서 분포가 자유로운 쪽이 무표적 용어라고 정의하였다.

그런데 Oxford 영영 고급학습자 사전(Oxford Advanced Learner's Dictionary)에 제시된 come과 go의 활용 형태는 다음과 같이 통사적 위치가 대칭적이며 반드시 한 동사만 나타나야 하는 상보적 관계의 통사적 환경은 존재하지 않는다.

come, go V	come, go to V
come, go preposition	come, go Ving
come, go adverb	come, go adjective

그러나 두 동사 중 한 동사가 다른 동사에 비해 매우 높은 빈도수로 발생하는 구조적 유형이 발견되므로 유형의 종류와 빈도수를 조사하여 구조적 측면에서 어떤 동사의 분포가 자유로운지를 비교하고자 한다. 유형의 종류는 ①be coming/going to 동사원형, ②come/go + 동사원형 ③come/go + 동사원형-ing, ④come/go + 장소 전치사로 제한하여 조사하였다.

먼저 be coming/going to 구조에 대하여 살펴보자. Perez(1990) 등의 많은 학자들은 be going to가 진행형에서 문법적 표지로 굳어진 것이라는 데 동의한다. 이 의견에 착안하여 be coming to와 be going to가 사용된 문장을 COHA(Corpus of Historical American English)에서 검색한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그 결과는 두 표현 자체의 빈도수를 나타내며, 진행형에서 문법적 표지로서의 무표적 확장은 be going to에서 나타나는 현상임을 보여준다.

1810년도에는 be coming to와 be going to의 사용빈도수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해를 거듭할수록 be going to의 사용빈도수는 크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2000년에는 12450회 사용되었으나 1800년에서 2000년까지 be coming to의 최대 사용횟수는 127회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be coming to 구조가 미래시제를 표시하기 위해 사용되었던 현재진행형 구조에 to 부정사가 결합된 구조로 사용되었던 사용빈도수가 매우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에는 come과 go가 동사원형과 결합하는 언어 유형의 빈도수를 통해 두 동사의 형태적 유표성을 논의해보고자 한다. Nicolle(2009)에 따르면 come과 go는 다

표 1. be coming/going to 동사원형의 발생빈도수 비교

연도	be coming to V	be going to V	연도	be coming to V	be going to V
1810	0	35	1910	127	5907
1820	12	153	1920	98	5865
1830	20	427	1930	101	6187
1840	27	831	1940	70	6229
1850	41	1320	1950	76	6456
1860	34	1661	1960	85	6609
1870	56	2130	1970	81	6211
1880	95	2269	1980	62	8666
1890	102	3639	1990	79	9105
1900	120	5750	2000	94	12450

큰 동사와 연이어 결합할 수 있는 특별한 유형에 속한다. <그림 1>은 come과 go 뒤에 결합하는 동사의 종류를 COCA(Corpus of Contemporary American English)에서 검색한 후 비교한 결과이다. come과 go와 모두 결합하는 동사는 watch, see 등의 지각동사와 의사소통과 관련한 ask, tell, speak, 존재를 의미하는 live, stay 등 종류가 다양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come과 go와 단독으로 결합하는 동사의 종류는 매우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meet, give, rescue, follow, let이라는 다섯 개의 동사만이 come과 단독으로 결합하였지만 go는 30개의 동사와 결합하였다. 이 구조에서도 go가 come에 비해 자유로운 분포도를 가진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1. come/go 동사원형 구조에 사용된 동사의 종류

다음으로 come/go 동사원형-ing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자. 이 유형의 구조에 대해서는 언어에 참여하는 동사별로, come과 go 동사의 사용빈도를 이용하여, 두 동사의 유표성을 논의하고자 하다.

- (2) a. Bill went/came singing down the street.
- b. Bill went/came running down the street.

이 연구 구조에 참여하는 singing과 running과 함께 사용되는 come이나 go의 사용 빈도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 COCA에서 검색한 결과 come singing은 7회 go singing은 9회, come walking은 176회, go walking은 146회로 빈도수의 차이는 크지 않아, 두 동사의 유표성 논의의 근거를 찾을 수 없었다.

그러나 여가 활동과 관련된 동사들은 go와 더 자주 결합하여 숙어처럼 사용되는 특징이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 다음은 COCA에서 검색한 come과 go가 여가활동을 의미하는 동사들과 결합하는 빈도수이다. 여가활동과 관련한 동사는 Silva(1975)의 분류항목을 참고로 하였다.

표 2. 여가활동을 의미하는 동명사와의 사용빈도수

come	사용빈도수	go	사용빈도수
camping	3	camping	1163
hiking	2	hiking	118
fishing	9	fishing	661
swimming	21	swimming	427
skiing	3	skiing	198
shopping	16	shopping	1063

<표 2>에서 알 수 있듯이 두 동사의 사용빈도수는 큰 차이를 보인다. come과 go는 동사원형-ing와 결합하는 구조로 사용될 수 있으며 이동의 방법이나 이동과 동시에 발생하는 동사와 결합한다는 점에서는 대칭적이지만 여가활동 동사들은 주로 go와 결합하였다. 따라서 go가 결합할 수 있는 동사원형-ing의 종류가 더 많으므로 동사원형-ing와 함께 사용되는 구조에서 go의 분포도가 더 높다고 추론된다.

이번에는 come과 go가 결합하는 전치사의 종류를 통해 두 동사의 분포성을 비교해보자. Levin(1993)의 동사 분류법에 의하면 come과 go는 내재적으로 유도된 이동 동사군(verbs of inherently directed motion)으로 같은 동사군에는 ascend,

depart, escape, leave 등이 있는데 이 동사군은 자동사로 사용될 때 전치사구가 보충어로 자주 온다. 그런데 전치사구가 오지 않으면 타동사로 전환된다. 하지만 come과 go는 전치사구가 오지 않으면 비문이 되므로 (*Sharon came the room.) 두 동사는 전치사구와의 결합이 빈번할 수밖에 없다.

come과 go가 전치사구의 동반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두 동사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결합하는 전치사의 종류는 다를 수 있다는 가정 하에 COCA에서 두 동사와 결합한 전치사의 종류를 비교해보았다. 이동 동사임을 감안하여 전치사의 종류는 장소 전치사로 제한을 두었다.

표 3. come과 go와 결합한 전치사의 종류

come과 결합한 전치사의 종류		go와 결합한 전치사의 종류	
to	in	to	in
at	through	at	through
into	from	into	from
over	by	over	by
after	toward	after	along
out	upon	for	underneath
within		without	about
13개		14개	

come은 13개의 전치사와 결합하고 go는 14개의 전치사와 결합하여 go와 결합하는 전치사의 종류가 더 많으므로 이 구조에서도 go가 분포상 더 자유롭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be going to/be coming to, come/go 동사원형, come/go 동사원형-ing 구조에서 발견되는 빈도수 및 결합가능한 동사의 종류의 차이 그리고 결합하는 장소 전치사의 차이에 대해 살펴보았다. 1800년 이후 be going to의 사용빈도수는 꾸준히 증가하여 현재는 조동사와 같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여가활동과 관련한 동사들은 go와 연어 되는 경향이 높아 숙어처럼 사용되고 있다. 또한 come/go 동사원형 구조에서는 go와 단독으로 결합하는 동사의 종류가 come과 단독으로 결합하는 동사의 종류에 비해 현저하게 많았으며 같은 수의 문장에서 go와 결합하는 전치사의 종류가 더 많았다. 이 결과들을 종합하여 보면 go는 특정 구조로 사용되는 빈도수가 come에 비해 높고, 결합 가능한 동사 및 전치사의 종류가 많아 분포가 자유롭다고 볼 수 있으므로 분포 기준에 의하면 go는 come에 비해 상대적

으로 무표적인 특징이 발견된다고 추론 할 수 있을 것이다.

4. 의미적 분포의 유표성과 come/go

come과 go는 형용사와 결합하여 추상적인 상황을 묘사하는데 많이 사용된다. 그런데 come과 go는 언어 관계를 이루는 형용사의 종류와 그 의미에서도 비대칭 현상이 발견된다. 여기서 의미란 주로 긍정과 부정의 의미를 지칭한다. 먼저 come과 go가 긍정적 의미의 형용사와 결합하는 경우⁵를 살펴보자.

표 4. come과 go와 결합한 긍정적 의미의 형용사

	come	go
alive	1074	1
bright	0	18
true	2388	9
good	22	140
great	30	186
green	2	238
rich	2	17
free	168	402
straight	627	2451
fine	0	149

(주보현 2011: 42)

<표 4>에서 알 수 있듯이, 긍정적 의미를 나타내는 형용사와 언어 관계를 형성하는 경우를 살펴볼 때, 형용사 alive와 true의 예에서는 come의 사용이 압도적으로 많지만, 이 두 형용사를 제외한 긍정적 의미의 형용사 대부분에서는 go의 비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긍정적 어휘와 come이 제한적으로 결합한다는 위의 결과를 통해 come이 긍정적 의미의 형용사와 공기한다는 주장은 유지되기 어려우며 go와 긍정적 의미의 형용사의 결합은 일반적임을 알 수 있다.

이번에는 come과 go와 결합하는 부정적 의미의 형용사를 살펴보자. 다음은 COCA에서 검색한 결과이다(주보현 2011: 42 참조).

⁵ come과 go가 결합하는 긍정과 부정의 형용사의 종류는 박주영(2009: 49)의 논문에서 부분 발췌하였으나 코퍼스의 종류가 다르므로 다른 결과를 보인다.

표 5. come과 go와 결합한 부정적 의미의 형용사

	come	go
bankrupt	0	820
bad	8	896
crazy	1	1711
dark	2	417
dead	6	411
empty	3	29
extinct	0	240
wrong	0	868
hungry	11	373

<표 5>에서 알 수 있듯이 부정적 의미의 형용사는 모두 go와 결합하는 비율이 come에 비해 현저하게 높다. 전통적으로, 부정적 의미의 형용사는 come과 공기 관계를 이루지 않고, go와의 결합을 선호한다고 주장되었는데 <표 5>의 결과는 이러한 주장과 일치하고 있다.

따라서 형용사와의 언어 관계에서 come은 긍정적 의미와의 비대칭적이면서도 유표적인 결합을 선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와는 반대로, 동사 go의 경우, 형용사와의 의미적 결합에 있어서, come과 같은 비대칭적이며 유표적 경향을 보이기도는 일반적이며, 무표적 경향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인지적 복잡성의 유표성과 come/go

인지적 복잡성의 정의는 언어적 관점과 언어외적(extralinguistic)⁶ 관점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먼저 언어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그 정의는 주로 의미적 기준과 의미의 부연설명 혹은 치환에 의존한다.

The marked member of an opposition is more semantically complex(more informative, more focused) than the unmarked member.

(Elšik & Matras 2006: 17)

⁶ Elšik & Matras(2006) 및 Givón(1995)은 언어 진화, 아동의 언어, 언어 습득, 언어 장애 등을 언어 외적(extralinguistic) 주제로 분류하고 있다.

Elšik & Matras(2006) 그리고 Wurzel(1994)은 인지적 복잡성을 의미적 관점에서 다루며 유표적 용어는 더 많은 정보와 초점을 가지게 되어 의미적으로 무표적 용어에 비해 복잡하다고 정의한다. 다시 말해 무표적인 용어와 유표적인 용어의 관계를 ‘쉽다/어렵다’의 관계로 정립하기보다 ‘간단하다/복잡하다’의 관계로 나타낸다. 의미적으로 간단하다는 것은 인지적으로 분명하게 인식된다고 볼 수 있다 (Langacker 1993).

이 기준을 토대로 come과 go의 비대칭성에 대해 논의해보자. 여기서는 두 동사가 구분 없이 사용될 수 있는 상황을 통해 차이를 밝혀보고자 한다. 먼저 come과 go의 의미를 NSM 접근법⁷에 근거하여 살펴보도록 하자.

- (4) X came to place-A =
 before this, X was somewhere
 X wanted to be somewhere else
 because of this, X moved for some time
 because of this, after this X was in place-A
 someone in this place could think:
 X is in the same place as me.

- (5) X went =
 before this, X was somewhere
 X wanted to be somewhere else
 because of this, X moved for some time
 because of this, after this X wasn't in this place any more
 X was somewhere else

(4)와 (5)를 비교하면 come과 go의 의미의 구성요소는 장소와 관련한 네 번째부터 다른데 X came은 X가 목적지에 있는 결과를 발생시키며 X went는 X가 특정 장소를 떠나는 의미가 부각된다. 두 동사의 의미 차이를 유발시키는 중요한 요인은 come의 마지막 구성요소로 ‘someone in this place’라는 표현에 사용된 누군가(someone)에 의해 X의 마지막 장소가 ‘자아 중심적’인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누군가(someone)는 X의 마지막 장소를 ‘X is in the same place as me’, 즉 X가 자신과 같은 공간에 있다고 해석하게 되고 이것은 come이라는 동사에 주

⁷ Natrual Semantic Metalanguage의 줄임말로 Anna Wierzbicka에 의해 고안되었다. 자연 언어를 사용하여 같은 의미를 가진 문장을 다른 표현으로 치환하여 설명하는 방식이다.

관적인 견해가 투영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Goddard(2010)는 come의 마지막 요소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Because of the component ‘someone in this place could think: X is in the same place as me’ refers to a POTENTIAL interpretation, it is even compatible with hypothetical or imagined situations, ... even though this expected situation never came to pass.

이 설명에 따르면 come과 go라는 두 동사가 모두 사용 가능한 문맥에서 화자가 go보다 come의 사용을 선호한다면 누군가가 화자의 공간에 함께 있을 것이라는 화자의 기대나 추측을 예들려 표현하는 의미라고 볼 수 있다.

다음 예문들을 통해 이러한 견해를 구체화해보자.

- (6) a. She came/went to the corner as we’d arranged, but I’d got stuck in the traffic and didn’t make it.
- b. Tom wonders if Jenny comes/goes to his graduation.

(6a)에서 come이 사용된다면 화자인 I는 실제로는 비록 그녀가 있는 공간에 가지 못했지만 그녀와 같은 공간에 함께 있을 것이라는 예상을 한 경우를 의미한다. (6b)에서 come이 사용된다면 Tom은 자신의 졸업식에 참석할 것임이 확실하며 Jenny가 졸업식장이라는 공간에 함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반영된다. 즉 come과 go 두 동사가 모두 사용가능한 맥락에서 come이 선택되면 독자나 청자들은 화자가 잠재적인 기대를 하거나 예상을 하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다음과 같은 상황을 생각해보자.

- (7) A : Why did you walk out last night?
- B : I came/went to the front door to let Jenny in, but Jenny had already left.

(7)에서 A가 B에게 어젯밤 왜 밖으로 나갔는지 묻자 B는 Jenny를 집 안으로 들이기 위해서 현관문으로 나갔다고 답을 한다. 그런데 이 때 B가 came을 사용한다면 그것은 Jenny가 현관문 밖에서 B를 기다리고 있어 B와 같은 장소에 있게 될 것을 B가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같은 맥락에서 화자가 go 대신 come을 사용한 것은 어느 누군가가 화자와 같은 공간에 있을 것이라는 화자가 가진 기대

와 예상을 함축하고 있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으며 청자는 화자가 가질 수 있는 잠재적 예상에 대해 해석할 수 있어야 적절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동일한 사용 조건에서 come은 화자의 잠재적인 기대나 예상이 함축되므로 더 많은 정보를 가지게 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인지적으로 복잡하다고 추론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에는 언어외적인 측면에서 두 동사의 비대칭성을 비교해보고자 한다. Givón(1995)은 인지적 복잡성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The marked category tends to be cognitively more complex—in terms of attention, mental effort or processing time— than the unmarked one.

(Givón 1995: 337)

이 정의에 의하면 유표적 용어가 무표적 용어에 비해 인지적으로 복잡하므로 유표적 용어를 이해하는데 시간이 더 걸리며 더 많은 주의력과 집중력을 요구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기준은 언어 습득이나 사고 능력의 수준과 관련하여 설명할 때 주로 사용된다(Mayerthaler 1987).

이와 관련하여 임지룡(2008: 122)은 ‘사다’와 ‘팔다’의 원형의미와 확장의미에서 드러나는 인지적 복잡성의 비대칭 현상을 초등학교 교과서의 사용 빈도로 분석하고, 두 동사가 대부분 원형의미로 사용되며 확장의미는 3회만 나타났으므로 발달 단계에서 원형의미가 확장의미보다 먼저 습득된다고 밝혔다. 더불어 이러한 결과의 이유를 원형의미가 확장의미에 비하여 주의력, 정신적 노력, 처리 시간 등에 있어 더 단순하기 때문이라고 시사하였다.

초등학교 영어 교과서의 경우도 단계별로 인지적 복잡성을 반영한다는 가정 하에서 볼 때, come과 go의 비대칭성을 볼 수 있었다. 초등학교 5-6학년의 국정 영어 교과서의 본문에서 나타난 come과 go는 사용상의 차이가 있었는데, 5학년의 경우 본문에서 come은 단 한 번도 제시되지 않았지만 go는 다양한 유형의 원형의미로 사용되고 있었다. 6학년의 경우 본문에서 come은 원형의미로 3회 나타날 뿐이었으나 go는 14회 제시되었으며 be going to와 같은 확장된 용법으로 사용되었다. 초등 영어 교과서의 인지적 복잡성과 언어 발달 단계를 고려해 볼 때 come보다 go가 먼저 습득됨을 시사해 주며 go가 이해하기 더욱 쉽고 간단하다는 것으로 귀결될 수 있을 것이다.

이번에는 come과 go의 인지적 비대칭성을 직시적 투사(deictic projection)⁸를

8 직시적 중심은 대개의 경우 화자에 있으나 때에 따라서는 화자에 있던 직시적 중심이 다른 사람에게 이동하는데 이를 Lyons(1977)는 직시적 투사라고 부른다.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사고능력과 관련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직시적 중심(deictic center)이란 come과 go 두 동사의 사용을 구분하기 위한 기준점을 뜻하며 화자가 직시적 중심이 되는 경우가 가장 흔하다. 그런데 come은 화자에게로 가까워지는 이동뿐만 아니라 청자에게로 가까워지는 이동에도 사용된다. 화자가 현재 위치를 떠나는 이동이 다른 이에게는 가까워지는 이동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이유를 Goddard(2010)는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 바 있다. 즉 아동들이 come과 go를 학습할 때 come은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사고하는 관점 전환 기술(perspective shifting skill)이 필요하다고 볼 수 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come의 유효성을 알 수 있다.

또한 박영선(2008)은 영어권 나라 사람들이 화자가 상대방을 향한 이동을 표현할 때 come을 선호하는 이유를 상대방의 입장에서 화자가 오고 있다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자신 위주의 사고에서 벗어난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한 발화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이 견해는 come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구축되어야 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타인과 관련한 사고방식은 아동의 자기중심성에 비해 늦게 발달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아동들이 come의 직시적 투사와 관련한 활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go보다 많은 주의력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두 동사가 사용 가능한 상황에서 come이 사용되는 경우 화자의 기대나 예상이 함축된다는 점을 토대로 come은 go에 비해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 인지적으로 복잡하다고 볼 수 있었다. 그리고 초등학교 교과서에 사용된 come과 go 빈도수 비교와 come의 사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비교적 높은 사고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도 come이 인지적으로 복잡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근거로 인지적 복잡성의 기준에 있어 come이 유효적이며 go가 무표적이라고 분류할 수 있겠다.

6. 결론

대립어의 의미는 상호 대칭적인 반면, 화자의 언어나 의식 속에서 대립어는 비대칭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비대칭성이 나타나는 이유는 의미 구조가 언어 자체의 객관적인 대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관점에서 해석되기 때문이다(임지룡 2008).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언어적 비대칭성을 come과 go라는 반의어 쌍을 유효성의 관점에서 분석해 보았으며, 동사 go의 무표성을 네 가지 관점에서 고찰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내용이 논의되었다.

첫째, 중화 기준에서 come은 유효적이며 go는 무표적이었다. come은 항상 직

시 동사로 사용되는 반면 go는 직시 동사와 중립 동사(neutral verb)로 사용될 수 있었으며 이는 go가 come의 반의어가 될 수 있는 동시에 come의 상위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분포 기준에서 come은 유표적이며 go는 무표적이었다. 두 동사가 사용될 수 있는 통사적 구조의 사용빈도수와 두 동사와 결합하는 보충어의 종류를 코퍼스 자료를 통해 비교했을 때, go는 come에 비해 다양한 구조에서 높은 빈도수를 가지며 결합 가능한 보충어의 종류가 더 다양하여 분포상의 제한이 적었다. 셋째, come과 go가 긍정적 의미의 형용사와 부정적 의미의 형용사와 결합할 때 come이 결합할 수 있는 어휘는 go에 비해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동사 come이 유표적이고, 동사 go가 무표적이라는 사실을 주장하였다. 넷째, 인지적 복잡성의 기준에서 come은 유표적이며 go는 무표적이었다. 먼저 come과 go 두 동사가 모두 사용가능한 맥락이나 come의 사용이 더 선호될 때는 화자의 기대나 예상이 반영되어 있어 언어적 관점에서 인지적으로 복잡하였다. 그리고 초등학교 영어 교과서에서 come과 go의 사용빈도수와 출현순서를 통해 go가 습득이 더 용이하며, come을 이해하기 위해 관점 전환 능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근거로 언어 외적 관점에서도 come이 인지적으로 복잡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동안 come과 go에 관한 연구는 많았지만 두 동사의 비대칭성을 코퍼스를 이용하여 유표성의 측면에서 비교 분석한 연구는 드물었다. 두 동사가 매우 기본적인 동사류에 속하고, 이러한 동사의 유형이 각 언어마다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두 동사에 존재하는 비대칭 현상을 이해하는 것은 한 언어에 대한 이해를 넘어 범언어적인 현상에 대한 이해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해 본다. 본 논문의 여러 부분에서 코퍼스의 자료가 사용되었는데, 코퍼스는 데이터 베이스의 양과 자료 구축에 따라 상이한 결과를 낼 수 있으므로 결과가 다소 가변적일 수 있다는 한계가 있음을 밝히며 본 연구를 마무리 짓고자 한다.

참고문헌

- 박영신. 2008. 영어와 한국어의 문화적 이해를 통한 어휘사용 차이 연구 : 영어동사 Come, Go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수원대학교.
- 박주영. 2009. 직시적 이동 동사 come과 go의 의미연구: 인지언어학적 분석. 석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
- 유승만. 2006. 로만 야콥슨의 유표성 이론 연구. 『러시아 연구』 16(2): 271-292.
- 임지룡. 1997. 『유표성의 인지적 의미분석』. 서울: 박이정.
- 임지룡. 2008. 『의미의 인지언어학적 탐색』. 서울: 한국문화사.
- 주보현. 2011. 영어 이동동사 come과 go의 벡터 관점 의미 분석.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 Battistella, E. 1990. *Markedness: The Evaluative Superstructure of Language*.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 Clark, E. and O. Garnica. 1974. "Is He Coming or Going? On the Acquisition of Deictic Verbs," *Journal of Verbal Learning and Verbal Behavior* 13: 559-572.
- Croft, W. 2003. *Typology and Universal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Elšik, V. and Y. Matras. 2006. *Markedness and Language Change: The Romani Sample*. Berlin: Mouton de Gruyter.
- Givón, T. 1995. "Markedness as Meta-Iconicity: Distributional and Cognitive Correlates of Syntactic Structure," In Givón, T. (ed.), *Functionalism and Grammar*. Amsterdam: John Benjamins, 25-69.
- Goddard, C. 2010. "The Semantics of Coming and Going," *Pragmatics* 7(2): 147-162.
- Haspelmath, M. 2006. "Against Markedness," *Journal of Linguistics* 42: 25-70.
- Langacker, R. 1993. "Reference-Point Constructions," *Cognitive Linguistics* 4: 1-38.
- Levin, B. 1993. *English Verb Classes and Alternation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Levinson, C. 2006 "Deixis," In Laurence, R. (ed.), *The Handbook of Pragmatics*. Oxford: Blackwell Publishing, 97-120.
- Lyons, J. 1977. *Semantics* 2.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atlock, T. 2004. "The Conceptual Motivation of Fictive Motion," In Radden, G & K. Panther. (ed.), *Studies in Linguistic Motivation*. Berlin: Mouton de Gruyter, 221-248.
- Mayerthaler, W. 1987. "System-Independent Morphological Naturalness," In Dressler, W. (ed.), *Leitmotifs in Natural Morphology*. Amsterdam: John Benjamins, 25-58.
- Miller, A and N. Johnson-Laird. 1976. *Language and Perception*.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Nakazawa, T. 2009. "A Typology of the Path of Deictic Motion Verbs as Path Conflating Verbs: The Entailment of Arrival and the Deictic Center," *Poznań Studies in Contemporary Linguistics* 45(3): 385-403.
- Nicolle, S. 2009. "Go-and-V, Come-and-V, Go-V and Come-V: A Corpus Based Account of Deictic Movement Verb Constructions," *English Text Construction* 2(2): 185-208.
- Perez, A. 1990. "Time in Motion: Grammaticalisation of the Be Going To Construction in English," *La Trobe Working Papers in Linguistics* 3: 49-64.
- Radden, G. 1996. "Motion Metaphorized: The Case of Coming and Going," In Casad, E. (ed.), *Cognitive Linguistics in the Redwoods: The Explanation of a New Paradigm in Linguistics*. Berlin: Mouton de Gruyter, 423-458.
- Shen, X. 1999. *Markedness Theory and Linguistic Asymmetry*. Jiangxi: Jiangxi Education Press.
- Silva, C. 1975. "Adverbial -ing," *Linguistic Inquiry* 6: 346-350.
- Talmy, L. 2000. *Toward a Cognitive Semantics: Typology and Process in Concept Structuring*. Cambridge: MIT Press.

Wurzel, W. 1994. "Morphology, Natural," In Asher, R. (ed.), *The Encyclopedia of Language and Linguistics*. Oxford: Pergamon Press. 590-598.

주보현(제1저자)

(609-735) 부산시 금정구 장전동 산 30

부산대학교 인문대학 영어영문학과

E-mail: fuxuan@pusan.ac.kr

박기성(교신저자)

(609-735) 부산시 금정구 장전동 산 30

부산대학교 인문대학 영어영문학과

E-mail: ksepark@pusan.ac.kr

접수일자: 2011. 07. 15

수정일자: 2011. 08. 12

게재일자: 2011. 08. 17